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양대불교대학의 대행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식의 고비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중로구 경자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 www.hanmaum.org ●FAX: (031)470-3116

길을 묻는 이에게



현대불교 제 288호
서기 2000년 10월 4일 수요일 19

법공양 페이지

고정시켜둔 '나' 를 놓아가는 것이 '관'

깨달으면 '나' 는 사라집니까

문 궁극적 깨달음 후에 개체성이 남습니까? 가(거지 나) 가 사라지고 진(참 나) 또는 불성이 드러나면 너와 내가 없고 모두가 하나 라는 것을 체험하게 된다고 합니다. 깨달은 이가 현생의 업이 다하여 육체를 버리고 죽으면 그는 진아 또는 불성과 합일하여 완전히 사라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형태이든지 개성 또는 개체성을 계속 유지하는 것입니까? 만일 수행의 결과가 문자 그대로 공이나 무로 돌아가는 것이라면 그것은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라는 의식이 유지되고 내 생명이 유지되어야 의미가 있는 게 아닐까요? 그렇다면 업에 의한 가아가 사라지는 것과 나라는 개체성이 보존되는 것은 어떻게 다른 것일까요?

답 생명과 불생불멸이 다르지 않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죽는다고 해서 사람이 없어질 리가 없습니다. 나무를 베어 없앴다고 해도 나무 그 자체가 다른 모습으로 변화했을 뿐, 없어진 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살았다 죽었다 하는 것은 개별적으로 생각할 때는 생멸이지만, 포괄적으로 볼 때는 불생불멸인 것입니다. 부처지고 변하고 하면서도 진리는 끊어지고 변함없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생불멸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영원토록 될 사이 없이 돌고 도는 깨달음 우리에게 생사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이렇게 돌다가 또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도리를 알지 못하는 삶에겐 죽고 사는 게 있으며, 한 번 잘못 생각에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어떠한 곳인지도 가리지 못한 채, 까치등우리든지 돼지우리든지 마구간이든지 개미소굴이든지 아무 데나 들어가서 그 소굴에서 그 모습으로 태어나 거기의 습에 빠져 있기 때문에, 사람의 모습으로 돌아오는 참으로 어렵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마음 닦아 깨달으면 세계생애에 끄달리거나 얽매이지 않을 것이고 나와 돌이 아닐 것이고, 돌이 아닌 깨달음 나를 짓고, 나투는 깨달음 모든 중생을 제도할 것이고, 보살도를 행하는 깨달음 부처와 부처가 돌이 아닌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처가 수 만 명이 있다 할지라도 부처님의 마음은 돌이 아니고 하나입니다. 부처님의 재가 깨달으면 모습은 다르지만 다 하나가 되며 궁극에는 그 하나조차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처가 하나라 할 수도 없고 많다 할 수도 없고, 없다 할 수도 없고 있다 할 수도 없어서 영거주춤하게, 그러면서도 너무도 확연하게 '무(無)'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깨달은다 하더라도, 다 부처님 마음 안에 하나의 부처라는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도 부처가 될 수 있는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결단코 믿고, 만물과 돌이 아닌 이 확연한 도리를 다 깨치시기 바랍니다.

키우는 개 인도환생 바라는데

문 저는 요즘 잠을 자도 밥을 먹어도 늘 생각은 한 곳에 가 있습니다. 그것은 동물에 관한 생각입니다. 13년 전부터 개 한 마리를 키웠고 있는데 그 전에는 동물에 관해서는 별 관심이 없다가 이 개를 키운 후부터는 동물의 비참한 운명을 알게 되었습니다. 스님, 사실 제가 지옥이나 아귀는 눈으로 볼 수 없어서 모르겠으나 눈에 보이는 지상의 현상 중 가장 불합리하고 불공평하며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인간이 동물에게 행하는 일방적인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삼악도는 실재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단지 인간의 마음 상태를 비유한 것에 불과한 것입니까. 동물에게는 깨달음이라도 성불의 여지가 있습니까. 아니면 억만겁을 살아도 구제될 수 없습니까. 정말 알고 싶습니다. 저는 제가 키우는 개를 향해 이다음에는 인간으로 태어나 발보리심하라고 매일 빌어줍니다. 제가 어리석은 것 인지요?

답 짐승들 중에서도 몇 되지는 않지만 같이 공부하는 도반들이 있습니다. 인간이 돼야만 이 벗어날 생각이 해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 그네들은 인간처럼 두 발로 걸기 위해서 항상 노력을 하고 항상 사람이기를 바라면서 자기 생명까지 겁니다. 몽둥이로 때려도 울면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고 그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칩니다. 그분이 아닙니다. 때로는 사람보다 더 나은 짐승들도 많이 있습니다. 주인의 은혜를 생각해서 항상 생명과 몸을 다 바쳐서, 때로는 그 식구가 다 죽을 것을 면하게 해주는 그런 짐승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짐작하시겠죠.

여러분이 보실 때 무심코 그냥 넘길 수도 있었지만, 이런 일도 있었습니니다. 어떤 가정에서 애가 생기지 않아서 애를 쓰고 있었는데 그 집에서 기르던 개가 새끼를 가졌답니다. 그러니까 그 새끼를 보면서 주인이 '너는 이렇게 새끼를 뱉는데 나는 어째서 아이가 없이 대를 잇지 못하느냐'고 항상 눈물을 흘렸답니다. 그러니까 그 개가 돌고리미 쳐다보면서 항상 같이 눈물을 흘렸답니다. 그러다가 얼마 안 있어서 새끼를 낳 놓고는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새끼를 낳 놓고 죽었으니 이걸 어떡하면 좋을까 하고 유유를 먹이면서 그 새끼들을 길렀는데 그 개가 죽고 나서는 바로 그 주인집 부인에게 애가 들어섰어요. 그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 그 애를 기르는 데도 그렇게 영리하고 착하고 의리와 도의를 지키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이름을 빛내주십시오.

그 개는 순간의 모습이 깨끗하지만 순간에 바뀌어서 사람으로 그렇게 탄생을 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아닙니다. 말이나 소도 식구들이 다 죽게 되면, 예전에 산사태가 많이 나고 그랬는데 산사태가 날 것 같으니까 소들이 그냥 막 뛰고 말이 뛰어다니면서 문을 들이치고 그래서 식구들이 나갔는데, 나가서 얼마 안 돼서 뭐가 벽력같이 소리가 나서 돌아다니니까 산사태가 그대로 무너져 내려서 눈이고 집이고 하나도 없이 그냥 덮였답니다.

그러면 때에 따라서 사람을 살리려고 그렇게 애를 써도 '자신의 강아지 왜 저렇게 짖는 거야 하면서 듣기 싫다고 몽둥이로 때리고 돌맹이질을 하고 그러거든요.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그러는 거죠. 그래서 보이는 도둑만 알지, 보이지 않는 데서 들어와 사람을 해치는 거는 모르기 때문에, 그 개는 수년동안 그 집에 있으면서 인간의 도리를 배워서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해 주려고 자꾸 막고 짖는 건데, 그걸 모르고 잠도 못 자게 짖는 다고 몽둥이로 때리고 그랬는데도 뛰어 달아나갔다가 와서 그러고 또 와서 그러고, 그러더니 개가 그냥 피를 토하고 죽어버립니다.

그러면 어느 스님이 지나가시다 그 광경을 보시고 "어허, 이 집 식구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개는 모습을 버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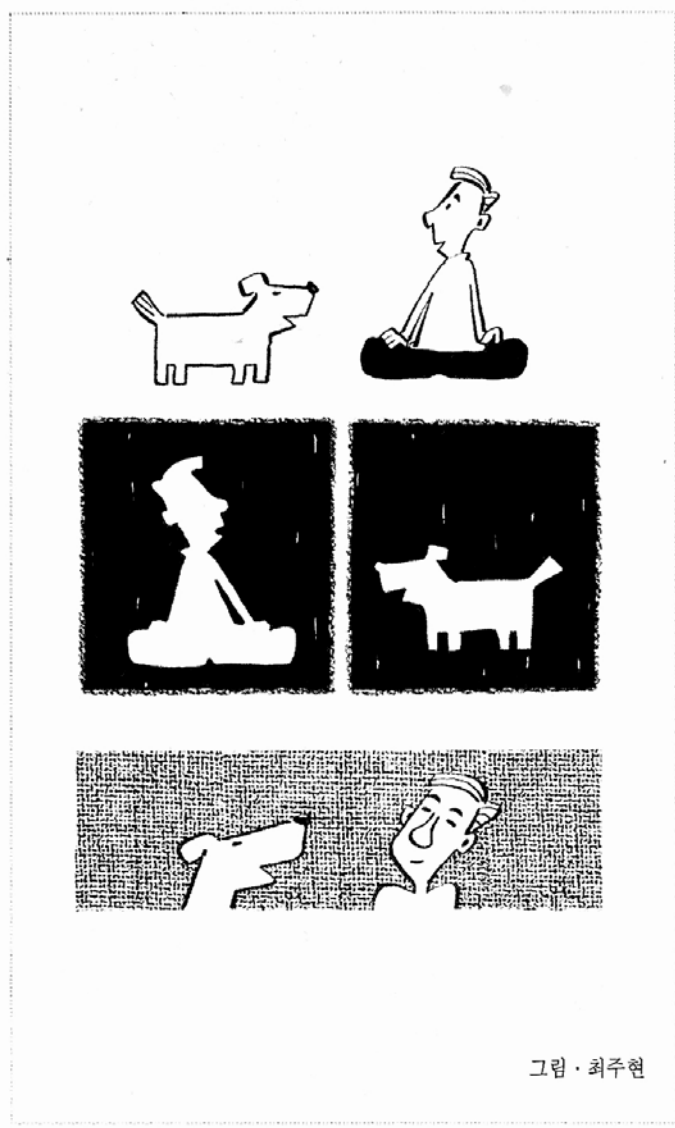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내 근본에 둘 아니게 말해서 나와 남 이익되게 실천하면 '나' 라 할게 없는걸 알게 돼요

나. 허허, 그것 참 기록하구나." 이리서면서 "너는 사람으로 태어나서 좋은 인연을 만나 잘 배우고 사람을 귀중하게 생각하고 은혜를 베풀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인되는 사람이 그 소리를 듣고서 얼른 개를 거둬다가 물어줬답니다.

어떻습니까. 사람이 되기 위해서, 사람을 거처야 부처가 되는 깨달음. 아니, 모든 걸 버어버리기 위해서요. 그렇게 해서 은혜도 값을 뵈만 아니라 인간으로 태어나기 위해서 인간의 너그럽고 지혜로운 살림살이를 다 지켜보면서 배웠던 것이죠. 인간을 거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말입니다. 눈물나는 일 아닙니까. 그렇게 사람이 되기 위해서, 두 발로 걸기 위해서, 자기 생명과 자기 모습을 다 버리는 것이 말입니다. 사실 알고 보면 우리는 중천세계에서 상세계로 오르느냐 아니면 하세계로 떨어지느냐 하는 교차로에 놓여 있습니다. 과거로부터 지어서 나온 것도 벗어나려고 노력을 하는데, 왜 또 짚어

지려 합니까? 예전에 텔레비전에서 하는 전설의 고향이라는 이야기를 보셨겠지만, 그게 단순한 전설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여러분이 앞과 뒤를 모르기 때문에 화면 속의 일이라 생각하시지만, 과거에 살았던 것이 현실이고 현실에 살고 있는 것이 미래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짐승으로 태어날 수도 있고 짐승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이 사람으로만 있지 않고 짐승이 짐승으로만 있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시고 지극하게 마음을 내주신다면 전체에 전달이 돼서 인간으로 몸 받아 진화하기가 훨씬 수월해질 겁니다.

과거로 돌아가 차원 높이려면

문 요즘 유행하고 있는 영화를 봤습니다. 그것은 20년 전의 사람과 의 인연에 대해서 다룬 영화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예전에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내가 10년 과거로 돌아가서 누나들한테 공부를 가르쳐서 차원

높은 곳으로 올려 줄 수 있었다면 지금보다 더욱더 좋을 것을 하구요. 작년에 저의 큰누나가 몸을 벗었습니다. 차원으로 만나서 악연을 만난 것이 원인이었지요. 오늘도 영화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누나들을 공부시켰으면 누나들도 좀더 높은 차원의 사람들과 연이 되었을 것을,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나면 항상 남는 것은 허탈감 뿐이에요. 이러한 생각이 어떤 것을 인연하여 나왔는지, 그리고 이러한 생각이 앞으로 어떠한 과를 낳을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냥 아무 것도 아닌 망상인지요? 하지만, 저는 아주 사소한 행동이나 생각조차도 그냥 나오는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제 생각이 맞는 것인지요?

답 우리가 병정하게 따지고 본다면, 어제도 없고 오늘도 없고 내일도 없는 생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 어제도 없고 오늘도 없고 내일도 없는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느냐. 항상 얘기하지만 고정됨이 없이 참나 참나 화해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발자국을 때려놓을 때 한 발짝 때려놓으면 앞서 한 발짝이 없어지고 또 없어지고 하는 도리와 같이 우리 생활 전체가 그렇다는 얘기죠. 고정되게 한 곳만 바라보고 있으면 미쳤다고 할 겁니다. 이걸 보면 저절로 봐야 하고 이걸 들으면 저절로 들어야 하고, 이 사람 만나면 저 사람 만나야 하고, 이 길도 걸어야 하고 저 길도 걸어야 하고, 갔다 하면 와야 하고, 모든 게 고정된 게 하나도 없어요.

예전에 어떤 사람이 자다가 꿈을 꾸었다고요. 너무 어렵게 짜들리며 살다 어느 날은 꿈을 꾸었는데 조상님들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스님께서 조상과 내가 돌이 아니라고 그러셨는데도 그렇게 생각하게 하고 괴롭게 하시냐고 그러니까 그 조상들의 영령들이 나왔다가 다 싹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가나 보니까 연기처럼 자기한테로 다 그냥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겁이 나가지고 뛰어 왔더라고요. '연기처럼 변하더니 전부 자한테로 들어왔으니 이게 어떡합니까?' 하구요. 그래서 '허허, 아무리 연기처럼 해서 들어왔어도 그게 영이라면, 영에다 영을 합쳤는데 그게 몇 개나 되겠느냐?' 하니까 '영이 아무리 많아도 영은 그냥 영이죠.' '그러면 됐지 않느냐?' 벌써 너의 몸으로 인해서 재상이 돼서 나간 것이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 그랬죠.

죽은 사람이든 산 사람이든 정말이지 공부하려고 하는 분들의 조상님들은 자손들과 함께 같이 공부하러 다녀요.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이상하다고 그렇게 봐 말을 안하지만 공부를 하려고 노력하는 분들의 조상님들은 그냥 고마워서 따라오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 얼마나 그게 한 사람으로 인해서 수천 수만 이 다 견져지는 도리입니까. 한 사람의 속에 몇 생이나 들어 있었습니까. 수천 생이 됩니다. 이 몸 속에요. 그게 인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이 지구라는 인간 만드는 공장에서 벗어나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근본 에너지로 그냥 자유스럽게, 때로는 이 모습으로도 되고 때로는 저 모습으로도 되고 용도에 따라서 그렇게 하면서 이 우주 전체를 다녔다 손색이 없다는 겁니다.

조상과 내가 돌이 아니고 부처와 내가 돌이 아닌 이유가 고정됨이 없어서 그렇다고 말을 많이 했지요. 삼세가 공했다구요. 삼세가 공한 반면에 자기조차도 공했다구요. 고정됨이 없다고 한

자체가 바로 나도 공하고 전체가 공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저께도 없고 오늘도 없고 내일도 없다는 말이에요. 또 같이 포용된 나는 내세울 것도 없고, 했다고 할 것도 없고, 한다고 할 것도 없다 이런 말입니다. 고정된 게 없이 참나 참나 화해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내 몸통이 속에 생명들이 많이 들어 있는데, 목이 말라서 내가 물 한 컵을 마셨다고 한다면 내가 마신 거였습니까. 누가 마신 거였습니까? 개별적인 누가 마셨다고 할 수가 없죠. 어떤 것을 내세워서 내가 했다 내가 먹었다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포괄적이면서 공식(共食)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나에게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살아나가면서 어떠한 경계가 딱쳐오더라도 겁내지 마세요. 내게 부딪쳐 오는 모든 것이 나의 지혜를 넓혀 주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다가오는 재료라 생각하고, 근근이 모두 맡겨놓고 지켜보세요. 더 위로 올라가서 알려하지도 말고 아래로 내려가 모르지도 말고, 오직 근본 그 자체에 놓는다면 그대로 한생각으로 모든 고가 소멸되어 위로는 조상들을 제도하고 아래로는 후손들의 뿌리를 튼튼하게 가꾸어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공부 열심히 하세요.

생일을 맞는 자세

문 저는 이제 스물 다섯살이 되는 청년입니다. 마음공부에 진전이 없을 때마다 '주인공!' 하며 마음을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무수한 삶 속에서 태어나 벌써 스물 다섯살을 살아 생일을 맞았습니다. 생일에는 어떻게 마음 내어 정진해야 하는지요? 또 중생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십시오. 진실한 중생이란 어떤 마음입니까? 알음알이로 알고 있습니다만 스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스님, 이번 공부 가르쳐 주셔서 항상 감사한 마음입니다.

답 여러분의 스승은 각자 여러분의 마음에 계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육신을 낳아온 부모가 있고 또 법의 부모가 내 마음 속에 있으니 그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기 위해서는 '안락같이 해야지' 이리지도 말고 '자연스럽게 하세요. 그것이 종도이자 중생입니다. 우리는 길에서 나서 길을 걸으면서 또 길로 갑니다. 부처님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하고 갑니다. 생각해 보세요. 안 그런가. 부처님과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모두가 부처님들이십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항상 말씀하시기를, 부처와 중생이 돌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또 우리 육의 부모도 자식과 돌이 아닙니다. 그걸 따져본다면 내 생일이라 할지라도 바로 나를 낳아 주시고 길러서 가르쳐 주신 그 뜻을 기리면서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촛불 하나라도 켜 드리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법의 부모와 육의 부모가 돌이 아니게 한마음으로 지극하게 관하면서 촛불을 켜면, 바깥으로는 형식이 되고 안으로는 정성이 되어 진짜 촛불을 켜는 것이 됩니다. 마음의 촛불 말입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은 자신의 생일이 다가왔다고 하면 무엇을 바라는 마음이 먼저 앞서서 것 같습니다. 내 생일이라고 해서 어떻게 내 생일이겠습니까? 부모의 아픔을 밀치고 나온 거죠. 그러니까 내 생일이 돌아오면 먼저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조그만 거라도 맛있는 걸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아버지 어머니, 이것 좀 잡쉴 보세요." 하는 것이 도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많은 돈을 들이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의 마음의 은혜를 생각하라는 거죠.

20면으로 계속

기복은 안위를 닦고 고요한 현실에 힘겨워하는 사람들도 순간순간이 고통으로 느껴지는 현대인들에게 대행 스님이 띄우는 희망의 메시지 **삶은 고(苦)가 아니다**

대행 스님과 신형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현대불교신문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팩스:031-470-3116)이나 인터넷 부디피아(<http://www.hanmaum.org>)로 연락 바랍니다.

AS5 288쪽
값 6,000원
에디션